

해외 자회사 성과에 미치는 국내 생산기반의 영향

이윤석* · 김보원*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Abstract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으며, 산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산시스템의 글로벌화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국내 생산은 하지 않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생산활동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화 과정에 있는 기업의 국내생산기반 (domestic manufacturing presence)이 해외 자회사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국내생산기반의 양적 측면은 자회사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둘째, "국내생산기반의 질적 측면은 자회사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기존의 글로벌 전략 분야의 연구는 글로벌 기업 가치창출 활동의 배치와 조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관점에 의하면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의 역량은 주로 글로벌 배치의 결과로 결정되며 조정을 통해 다소간의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즉, 현지국 산업수준, 목표시장 수준, 기업 규모, 자회사의 규모 등을 잘 고려해서 자회사에 자원을 배치하면 자회사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회사의 성과를 기술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초기에 적절한 자원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회사가 생산기술 학습에 집중적으로 노력하여 효과적으로 기술역량을 강화한다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생산기반과 자회사간의 조정을 통해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내생산기반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전자, 섬유, 기계/금속, 화학/제약 산업에 속한 50개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먼저, 양적인 면에서는 생산시스템의 글로벌화 정도가 자회사의 생산성 및 혁신성과 'U'자형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글로벌화 정도에 최적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외 생산능력과 국내 생산능력의 비중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생산성의 경우에는 글로벌화 정도가 50~75%인 기업 자회사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화 정도가 낮은 기업들도 글로벌화 정도가 높은 기업들에 근접하는 수준의 수치를 보여준다. 혁신성의 경우에도 유사한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질적인 면에서는 글로벌화 정도가 높을수록 국내생산기반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생산기반과 조정(coordination) 정도의 상호작용이 자회사의 생산성 및 혁신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글로벌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국내생산기반과 개별 자회사 간의 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생산기반으로부터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술을 학습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항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화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국내생산기반과 자회사 간의 조정 정도에 관계없이 추가적인 글로벌화 추진으로 자회사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글로벌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조정 정도가 높을 때만 추가적인 글로벌화 추진으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조정 정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글로벌화 추진이 오히려 자회사의 성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국 산업수준과 자회사 생산기술 능력은 자회사 성과와 (+)의 관계가 있었고, 목표시장 특성은 자회사 성과와 (-)의 관계가 있었다. 설립 후 경과년도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